

“남가주의 ‘부흥’ 이어 다시 일어나라”



남가주 부흥운동 성지 순례 기도팀들이 LA가 한 눈에 보이는 그리피스 천문대에서 남가주의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기독일보

남가주 지역 목회자와 중보기도팀 지도자,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 80여 명은 지난 28일, 남가주 지역 부흥의 성지를 답사하며 순례 기도회를 진행했다. 오전 8시 주님의 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출발한 남가주 부흥 성지 순례 기도팀은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빌리그레함 전도대회 천막 집회 장소와 아주사 거리 부흥 현장 그리고 아주사 부흥이 시작되었던 보니

브레 스트리트 주택을 방문해 기도하며 남가주의 부흥을 염원했다. 순례기도팀은 이어 LA 다운타운 거리를 돌아보며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미국의 각 기관 및 행정장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적인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기도했다. 전 세계 영화 산업의 중심지인 할리우드 길을 지나면서는 영화인들이 복음적인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기도했다.

이어 빌 브라이트게 부부를 양육했던 할리우드 장로교회의 헨리에타 미어즈 기념홀, 히피운동을 잠재웠던 척스미스 목사의 갈보리 채플 등 20세기 미국과 전 세계를 뒤흔든 부흥 운동의 중요 인물들을 차례로 방문해 기도했다. 청교도신앙회복운동본부(대표 한기홍 목사, 운영위원장 강순영 목사, 사무총장 강태광 목사)가 개최한 이번 순례 기도회에는

남가주에서 발생한 다수의 부흥 운동 발생지 탐방하며 기도

은혜한인교회, 감사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청교도화요기도모임, CBS중보기도팀, CMF 회원들이 함께했다. 강순영 목사와 강태광 목사는 이동 간 남가주에서 일어났던 부흥 운동의 역사와 개요,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을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다시 한 번 남가주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길 소망했다. 강순영 목사는 “아주사 거리 부흥을 비롯해 빌리그레함 전도대회, 빌 브라이트 박사의 CCC운동, 내비게이트 선교회, YWAM, Focus on the Family, Jesus People Movement 등 수 많은 부흥 운동이 미주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남가주에서 시작됐다”며 “역사상 큰 부흥 운동이 시작됐던 남가주에서 미국과 전세계에 부흥의 물결과 기도 운동이 다시 한 번 불길처럼 타오르길 간절히 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교도신앙회복운동본부는 남가주 지역 목회자와 사모들을 대상으로 남가주 부흥의 성지를 답사하면 순례 기도회를 이끌 예정이며, 이후에는 다민족 교회 지도자들과 부흥의 현장을 돌아보며 미국과 남가주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기도할 계획이다. 김동욱 기자

작년 연합감리교단 탈퇴 교회, 1800곳 넘어서

2019년 이후 2003개 교회 탈퇴 작년에만 79% 이탈

연합감리교뉴스(UMnews)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서 연합감리교단(UMC)이 동성애와 관련된 분열로 인해 2022년에 1800개 이상의 교회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 탈퇴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총 1825개 회원교회가 탈퇴를 위한 교인 투표를 승인받았다. 여기에는 지난해 정규과정에서 탈퇴 승인을 받은 교회 308곳과, 지역 기

구가 개최한 특별 회의에서 탈퇴를 승인한 교회 1517곳으로 구성돼 있다. 2019년 이후 탈퇴가 승인된 교회를 포함하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개신교 교단인 UMC를 떠난 교회는 총 2003개에 이른다. 이 자료는 연합감리교뉴스가 미국 연례 회의 보고서와 17개 특별 연례 회의 보고서를 검토해 수집되었다. 2022년 특별 회의에서 텍사스 연회는 294개 교회가 탈퇴에 투표하면서 가장 큰 교회 손실을 입었다. 노스캐롤라이나 연회는 249개 회원 교회가 이탈하며 뒤를 이었다.

북조지아 연회는 2022년 정기 회기 동안 71개 교회가 떠났지만, 이후 지도부는 교회들이 탈퇴 사유에 대해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탈퇴 과정을 일시 중단시켰다. 그 밖에 회원 교회가 대거 이탈한 연회로는 북앨라배마(198개), 북서 텍사스(145개), 인디애나(105개), 중부 텍사스(81개), 서부 오하이오(80개) 등이 포함됐다. 지난 몇 년간 UMC는 동성애를 “기독교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공식 규정의 입장을 놓고 분열적인 논쟁을 이어왔다. 결국 2019년 UMC 특별 총회는 동성애



지난 2019년 2월 24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UMC 특별총회 모습. ©UMC

를 금지하는 공식 장정을 통과시켰지만, 자유주의 진영은 교단의 규칙을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김유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현금/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미국 ↔ 한국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제공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023년 대박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 부터 Payment)
● 전기료 70~80%절감 (전기차 사용자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포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한) 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연) 국제이비스 USA 이사장
(전) 남가주 교회협의회 고문 변호사
(전) 재미발명가 협회 고문 변호사
(전) 중부상경회의 이사장

팜스프링스 ANC온누리교회 창립 5주년

임직자 세우고 힘찬 도약

팜스프링스 ANC 온누리교회(담임 이상민 목사)가 창립 5주년을 맞아 임직감사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지난 29일 오후 4시에 교회본당에서 열린 임직감사예배에서 김혜경, 현창애씨가 권사로, 크리스틴 메인, 이여훈씨가 집사로 각각 임직했다.

이상민 목사는 “4년 전 팜스프링스ANC 온누리교회 담임으로 부임해 영적으로 척박한 팜스프링 지역에 복음중심 말씀중심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면서 “팬데믹의 기간을 거치며 교회의 존폐위기에서도 오직 말씀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매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목사는 “영적으로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오직 성경과 말씀, 묵상 훈련이었다. 1년 1독 성경통독을 3년째 지속하며 단 하루도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영적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장착시켜주셨다”고 소감을 나눴다.

‘살리는 리더십’(눅7:11-17)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김태형 목사(ANC 온누리교회 담임)는 “교회의 리더십은 세상과 다른 영적 리



팜스프링스 ANC 온누리교회 창립 5주년 임직감사예배 기념촬영 ©기독교일보

더십이 필요하다”면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 와 함께 나인성에 들어가셨지만 과부의 아픔과 신음을 기억하시고 배려하셨다. 영적 리더십은 영혼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다가갈 때 사랑의치유가 시작된다. 우리가 먼저 이 사랑을 받았기에 이 사랑을 돌리는 자들이 되자”고 말했다.

팜스프링스 ANC 온누리교회 1대 담임 마원철목사는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이 확실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란

다”고 격려했다.

박성호 목사(ANC온누리교회 총괄)는 “주님 바라보며 주의일 다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할 일을 한것 뿐이라는 고백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임직자를 대표로 인사한 김혜경 권사는 “아말렉 전투와 같은 치열한 전쟁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고 기도해 승리를 이끌었던 아론과 훌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임직자들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이상민 목사의 인도로 김명국 장로가 대표기도하고 남가주장로총창단

의 특별 찬양에 이어 김태형 목사가 설교한 후 이상민 목사가 임직자 소개와 서약 안수 기도 후에 임직을 선포했다.

이어 이상민 목사가 임직자들에게 임직패와 김명국장로와 오진경 권사에게 공로패를 각각 증정했다. 남가주장로총창단의 축하찬양 후에 유진소 목사(부산호산나교회), 박한덕 목사(샌안토니오 ANC담임), 이성철 목사(베이커스필드 ANC 담임)가 영상으로 축하사하고 마크 목사(Desert Springs Church Lead Pastor)가 축하했다.

마원철 목사의 격려사,박성호 목사의 권면,김혜경 권사의 임직자 대표인사 후에 김명국 장로가 광고하고 이상민 목사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쳤다.

한편, 팜스프링스ANC온누리교회는 성장의 기쁨이 있는 공동체다. ‘새생명의 길’이라는 교재로 복음의 기초를 다지고 ‘일대일제자양육’교재로 제자의 삶을 맛보며, ‘커피브레이크 성경공부’로 성경의 각 권을 공부할 수 있는 양육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주중 성경공부를 통해 성도들이 말씀 중심적인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기쁨을 경험하고 있다.

팜스프링스 ANC온누리교회 문의는 전화 626)437-9630로 하면 된다. 이인규 기자

“교인에서 사역자로” LA 생명사역 콘퍼런스 열린다

2월 13일(월)부터 15일(수)까지
얼바인 베델교회

대구동신교회 생명사역훈련원(원장 권성수 목사)이 오는 2월 13일(월)부터 15일(수)까지 얼바인 베델교회(김한요 목사)에서 미주서부지역 목회자와 사모,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LA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생명사역’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셨던 예수님의 사역(마 9:35)을 뜻하는데, 대구동신교회는 ‘생명 사역’을 통해 ‘전교인의 사역자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지난 22년 동안 교인 수가 8백 여명에서 8천여 명으로 늘어나는 성장을 경험했다.

이번 컨퍼런스 주강사인 권성수 목사는 총신대학교에서 14년간 교수로 후학을 양성했고 대구동신교회에서 22년간 목회를 하면서 신학과 목회의 균형을 갖춘 목회자이다.

권 목사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생명사역 목회철학이 담긴 생명사역리더십, 성경을 강해하여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설교, 생명사역을 접목시킨 지교회의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등록은 생명사역훈련원 홈페이지(www.dsmlc.net)에서 가능하며 등록비는 100달러다. 등록을 마친 참석자에게는 생명사역을 위한 필독서 5권, 성도 훈련 교재 5종류 10권, 컨퍼런스 기간 점심과 저녁, 간식을 제공한다.

문의 949-854-4010 김동욱 기자

미주성결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하와이 성결인대회’ 열려



하와이 성결인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성

지난 1월 27~29일 하와이 갈보리교회(제키 카오후 목사)에서 미주성결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하와이 성결인대회’가 열렸다.

‘먼저 하나님의 소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조일래 목사(목자재단 이사장, 수정교회 원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면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목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노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목사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5가지 자세도 권면했다. 그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회,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한다”며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삼마귀는 대적하고 삼목회자들에게 절대 협력하며 스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삼자신은 희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기희생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세 차례 열린 집회에서 제키 카오후 목사는 “코로나 기간에 느슨했던 신앙을 조이고, 그동안 추구했던 방향과 목표를 재확인하는 은혜로운 집회였다”고 말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미주총회 총무 김시은 목사는 성결인대회에 참석해 한국 목자재단과 갈보리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총무는 “이렇게 멀리 미주까지 와서 성전 리모델링과 성결인대회를 인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황지혜 전도사(갈보리교회)는 “140년 전 미국에서 한국을 선교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미국을 선교하게 돼 감격스럽다”며 “받은 만큼 하와이와 열방을 향해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올해 미주성결교회 창립 50주년 행사가 미국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목자재단은 미국 한인 이민교회의 재활성화와 성결교회의 정체성을 드높이기 위해 하와이 리모델링 사역 및 성결인대회를 마련했다.

김진영 기자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프로그램 구성:



교수진

클린턴 아놀드 교수
Dr. Clint E. Arnold

도널드 스누키안 교수
Dr. Don Sunukjian

존 코 교수
Dr. John Coe

에디 변 교수
Dr. Eddie Byun

초청 강사진

줄리어스 김
Julius Kim

김한요 목사
Bryan Kim

강준민 목사
Choon-Min Kang

권혁빈 목사
Hyuk Been Kwon

권준 목사
James Kwon

이규현 목사
Gyu Hyun Lee

- 신입생 모집 -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 바이올라 대학교 소속 탈봇신학교에서 2023년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원서접수	2022년 11월 1일 마감
지원자격	-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신학석사ThM,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 - 졸업 평점평균 3.0 이상 (4.0 기준) - 목회경력 : 3년 이상의 목회 경험이 있는 자 (부목사 지원 가능)
수업기간	- 1년차 : 2023년 5월 29일 - 6월 9일 (2주) - 2년차 : 2024년 5월 27일 - 6월 7일 (2주) - 3년차 : 2025년 6월 2일 - 6월 13일 (2주)
수업장소	미국 캘리포니아 탈봇신학교 캠퍼스



입학문의: * 한국어 상담 가능

전화: +1 (562) 903 4705 (미국)

웹사이트: <https://www.biola.edu/doctor-of-ministry-korean-track>

이메일: talbot.korean.dmin@biola.edu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빅토빌센터 통해 ‘미주 흠리스 사역 모델’ 세울 것”

아버지밥상교회 빅토빌센터 2월 16일 감사예배 및 입주 흠리스 재활 및 직업 훈련, 예배 및 기도처로 활용

365일 LA 다운타운에서 200여 명의 노숙자들을 돌보는 흠리스 사역단체 아버지 밥상교회(대표 무디 고 목사)가 최근 빅토빌에 대규모 센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흠리스 사역의 모델을 세워가고 있다.

빅토빌센터는 LA 다운타운에서 북동쪽으로 1시간 20분 떨어진 외곽 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10에이커의 대지에 6개의 방을 갖춘 집과 예배공간, 매실수 600여 그루를 포함해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는 15개 동의 비닐하우스 등을 갖추고 있다.

현재 아버지 밥상교회는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들을 먹이고 돌보는 사역, 그리고 LA 한인타운에서 노숙자들을 예수제자로 세우는 제자사역을 하고 있는데, 재활과 직업 훈련이 가능한 빅토빌센터를 통해 흠리스 사역의 완성적 모델을 세울 수 있게 됐다.

빅토빌센터는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는 아버지 밥상 청년들에게 영성 훈련뿐 아니라, 농장 사역을 통해 재활훈련과 직업훈련까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디 고牧사는 “흠리스 사역에서 노숙자의 정서적 안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노숙 사역 초기부터 농장 마련을 위해 기도해 왔다”며 “이로써 아버지밥상교회는 흠리스들을 먹이고 입히는 돌봄 사역과

예수 제자 훈련 사역, 직업 교육 및 재활 사역까지 흠리스 사역에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기능을 모두 갖추게 됐다”고 기뻐했다.

고 목사는 “아버지밥상은 미주 50개 주로 흠리스 사역을 확대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는데, 빅토빌센터는 노숙사역에 가장 중요한 재활과 회복을 담당할 것”이라며 “LA의 사역 모델을 바탕으로 ‘미주 50개 주 흠리스 예수 제자 사역’ 비전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아버지밥상교회는 빅토빌센터를 한인커뮤니티에도 개방해 예배와 기도, 다양한 모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숙자 재활 훈련 봉사과 더불어 농촌 체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2월 16일 입당 감사예배를 시작으로 입주하게 될 빅토빌센터에는 먼저 아버지밥상 한인 청년들이 생활하며 재활 훈련을 받게 될 예정이다. 무디 고 목사 따르면 LA 다운타운 한인 흠리스가 100여명 가량인데, 이 가운데 청년들이 80%가 넘는다고 한다. 이 청년들은 대부분 1.5세로 부모를 따라 이민을 왔지만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해 중·고등학교 시절 마약에 빠진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무디 고 목사는 “마약에 중독된 흠리스들은 마약을 끊기 위해 대도시에서 떨어져 생



흠리스 재활 및 직업 훈련 센터로 사용될 아버지밥상교회 빅토빌센터 전경 ©아버지밥상교회

활해야 하는데, 도시에서 노숙생활을 이어가다 보면 마약의 중독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며 “먼저는 재활 의지가 강한 한인 청년들을 중심으로 빅토빌센터에서 훈련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버지밥상의 사역이 확장됨에 따라 노숙 사역을 돕는 손길이 더욱 필요하게 됐다. 아버지 밥상교회는 LA 지역 은퇴 선교사, 안식년을 갖고 있는 선교사 그리고 지역 교회 성도들이 흠리스 재활 사역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길 기도하고 있다.

무디 고 목사는 “노숙자들은 자신의 한계와 가장 낮은 자리를 경험한 사람들로, 이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제자로 새롭

게 거듭날 준비가 된 영혼들”이라며 “사람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차게 전할 사역자를 세우는 일에 LA 지역 선교사님들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디고 목사는 “그동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사역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은혜 가운데 흠리스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는다”며 “흠리스 영혼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에 더 많은 한인 사회와 단체, 교회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버지밥상교회 사역에 대한 문의는 전화 213)364-7289 무디 고 목사aro 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이만갑 탈북 자매들 ‘라틴아메리카 복음화’ 선교 동참 호소

오는 7월, 2023년 라틴아메리카 교육선교대회 개최

채널A의 인기 탈북민 예능 프로그램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해 인기를 모은 4명의 탈북자매들이 LA에서 간증집회를 갖고 라틴아메리카 복음화를 위한 선교 동참을 호소했다.

지난 29일 나성열린문교회(담임 박현성 목사)에서 열린 간증집회에서 김소연, 윤설미, 정유나, 이채원 등 4명의 탈북 자매들이 찬양과 간증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노래했다.

정유나 자매는 You raise me up을 바이올린 연주로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으며, 김소연 자매는 CCM “행복”을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을 소리 높여 간증했다. 이채원 자매는 그리운 금강산을 부르며 한반도 복음 통일을 염원했고, 윤설미 집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뛰어난 아코디언 실력으로 연주했다.

간증 집회 후에는 남진석 목사(사단법인 글로벌선진교육 이사장)의 2023년 라틴아메리카교육선교대회에 대한 설명회가 이어졌다.



지난 29일 나성열린문교회에서 열린 간증집회에서 '반갑습니다'를 열창하는 이만갑 출연 탈북 자매들 ©기독일보

글로벌선진교육이 진행하는 2023년 라틴아메리카교육선교대회(Global Education Fair in Latin America 이하 GEFLA 2023)는 중남미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선교 사역의 일환으로 올해 7월, 중남미의 중심인 과테말라에서 1천명의 중남미지역 초·중·고등학교 현장교사를 초대해 교육연수, 의료봉사, 문화공연 등 현지 교사들과 학생들을 섬기는 교육선교대회다.

GEFLA 2023에 참여하는 중남미 현지교사 1천명에게는 4박 5일간 동안 STEAM 융합교육과 음악교육 연수, 의료진료와 숙식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대회에 참여하는 한 명의 교사에게 필요한 재정은 500달러다. 글로벌선진학교는 이들의 등록을 도울 1천 여명의 재정 후원자를 찾고 있다.

남진석 목사는 “매 4년마다 대륙을 순회하며 현지의 선교적 필요에 응답하며 청소년들

에게 선교적 안목과 비전을 심어 주기 위하여 글로벌 교육대회를 개최한다”며 “이번 대회의 핵심은 그동안 STEAM 융합교육으로 성공적인 글로벌 교육을 이끌어온 글로벌선진학교(GVCS)의 경험을 살려서 약 1천 명의 중남미지역 초·중·고등학교 공식교사들을 초청하여 STEAM 융합교육을 연수시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남 목사는 “1천 명의 교사들에게 단돈 500달러를 들여 4박5일 동안 숙식을 제공하고 STEAM 융합교육과 다양한 교육연수를 시키게 되는데 이들을 도울 1천 명의 재정후원자를 찾고 있다”며 “한 명의 교사를 후원하면 이들이 온전하게 거듭나서 복음전도자로서의 교육선교사가 되었을 때 그들이 교실에서 만나는 학생들과 그 학생들의 가족들까지 연쇄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운동이 성공을 거두어 열매를 맺으면 한 세대와 국가의 복음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후원을 당부했다.

한편 이만갑 탈북자매들의 미주순회 간증집회는 덴버, 시카고, 아틀란타, 버지니아, 매릴랜드, D.C., 필라델피아, 뉴욕, 뉴저지, 텍사스, 과테말라 등지를 2월22일까지 순회하며 GEFLA 2023을 알리고 후원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김동욱 기자

정확하고 최고로 빠른 리퍼! 5년 연속 환자 만족도와 의료진의 진료 수준 별 5개의 최우수 등급 메디칼 그룹!

시니어분들이 건강 영웅! 서울메디칼그룹

메이저리프 코리아인 특급 박찬호

SMG 서울메디칼그룹
SEOUL MEDICAL GROUP

TEL 213.389.0077 • 800.611.9862

※ 광고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실제 환자는 아니며 서울메디칼그룹의 모델들을 임용하였습니다.

중북 세력, 교회에도 침투? “어제오늘 일 아냐”

“민노총 간부, 국보법 위반 혐의 목사 접촉” 언론보도 이 교수 “색깔론·공안몰이 치부 안 돼...우려 표현돼야”

국내 안보 당국이 최근 소위 ‘간첩 혐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추종 세력이 종교계에까지 침투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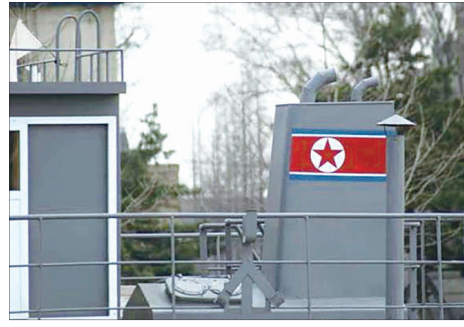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민주노총 조직국장이 북한 공작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 받는 A목사와 지난해 말 총 9차례에 걸쳐 통화와 문자메시지로 접촉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A목사는 쿠알라룸푸르에서 북한 공작원에 게 미화 1만8,900달러(한화 약 2천3백만 원) 상당의 공작금을 받고, B목사와 함께 북한 공작원과 회합·통신하고 북 체제를 찬양·선전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인물이라고 한다.

B목사는 다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5년 12월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A목사는 북한 공작금 관련 기소가 늦어져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어 작년 말 민주노총 조직국장과 접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 체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안보 당국은 북한 공작원이 제도권 노조와 시민 단체뿐 아니라 종교계 침투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에스더기독교운동본부 대표 이용희 교수는 과거 ‘월간 지저스 아미(Jesus Army)’에서 “(북한은) ‘북한과 베트남은 적화가 되는데, 왜 남한은 안 되는가? 남한은 교회 때문이다. 교세를 10분의 1로 줄이면 통일이 된다’



©한국오픈도어

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며 “교회의 교세를 10분의 1로 줄이는 전략 중 대표적인 것이 ‘10대 대형교회 무너뜨리기’”라고 주장했던 바 있다.

이 교수는 25일 본지와 통화에서도 “들은 바에 의하면, 북한이 가장 침투하기 좋은 곳이 교회라고 한다. 신원조회 같은 걸 잘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일각

에서는 ‘색깔론’이나 ‘공안몰이’ 등으로 치부하기도 하지만 꼭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영적 전쟁은 곧 말(言) 전쟁이라고 보는데, 색깔론이라고 더 이상 이런 말을 못 하게 되면 정말 나라가 위험해 질 수 있다”며 “이런 우려들이 자주 표현되고 공론화 되어야 한국교회도 깨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진홍 목사(두레공동체운동본부 대표)는 최근 주일예배 설교에서 “김정은 정권의 남한 공산화 10계명이 있다. 그 중 네 번째가 교회에 침투하여 무너뜨리란 것이다. 그러니 북한 세력이 교회에 침투한 역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했다.

김 목사는 또 “잠 공산당 세력이라는 것은 집요하고 간단하지 않다. 사회 각계각층에 뿌리를 박고 나라를 흔든다”고도 했다.

김진영 기자

기감 목회자 · 평신도 65% “NCCK 당장 탈퇴해야”

교단 설문조사, 강경 기류 재확인

지난해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교회 이철, 이하 기감)의 가장 치열한 이슈 중 하나였던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탈퇴 여부와 관련, 교단 내 목회자는 10명 중 6명이, 평신도는 10명 중 7명이 탈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감 내 소식을 전하는 웨슬리안타임즈가 지난 12월 27일부터 3일간 교단 목회자 및

평신도 4,500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응답률 26.82%)를 25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에서는 NCCK 탈퇴를 원하는 여론이 실제로 감지됐다.

설문에는 총 726명의 목회자와 481명의 평신도가 응했다. 목회자 중 60.3%가, 평신도는 이보다 더 많은 수치인 70.7%가 ‘당장 탈퇴’를 지지했다. 목회자와 평신도를 합치면 64.5%가 NCCK 탈퇴를 주장한 것이다. 반면 목회자의 39.7%, 평신도의 29.3%만이 ‘탈퇴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교인수 별로는 탈퇴 찬성 응답률이 50명 이하의 교인이 있는 교회의 목회자가 61.7%로 가장 높았고, 500명 이상의 교인이 있는 교회의 목회자는 56.1%로 가장 낮았다.

평신도의 경우에는 교인수 500명 이상 교회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75%), 50~100명 교회에서는 탈퇴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에 비교적 높은 응답(36.2%)을 보였다.

기감, 지난 총회서 격론... 예상 통합도 문제 제기

한편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양일간 광림교회(담임 김정석 목사)에서 열린 기감 제35회 총회에서는 NCCK와 세계교회협의회(WCC) 탈퇴에 대한 건의안에 올라와 격론이 펼쳐졌다. NCCK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는 등 반성경적이고 종교다원주의적이며 친북적이라는 것, WCC는 이단성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탈퇴를 반대하는 이들은 “탈퇴가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우리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람을 파송해 예방해야 한다”, “연구위원을 선정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폈다.

반면 찬성 측은 “이미 WCC나 NCCK는 기독교의 정신과 전혀 다른 정신을 추구하고 있다”, “과거에 잘했어도 변질됐다면 과감히 잘라내야 한다”, “시간이 지남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여기서 결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이철 감독회장 등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연구위원회 조직해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NCCK에 교단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결론지었다. 그러자 감리교인들이 결성한 ‘NCCK WCC 탈퇴를 위한 범감리교인 연합’은 즉시 성명을 내고 △NCCK·WCC에 대한 신학적 논의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미 때가 늦었다 △NCCK를 탈퇴하면 잃을 것이 많다는 주장은 감리교회가 배교단체에 역류돼 있다는 불행한 현실을 연장시킬 뿐 등의 목소리를 높였다.

NCCK “확일화된 입장 강제 않겠다”

이후 기감은 총회 결의에 따라 NCCK 대책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0일 NCCK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뿐만 아니라 NCCK를 구성하는 핵심 교단 중 하나인 예장 통합(총회장 이순창 목사)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NCCK의 입장을 묻고 차별금지법 옹호·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성명으로 혼란을 준 NCCK 인권센터의 명칭 변경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NCCK는 지난 19일 제71회기 1차 정기실행위원회를 갖고 ‘대화위원회’를 구성해 두 교단의 활동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홍정 총무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확일화된 입장을 강제하거나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회원교단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송경호 기자

제4차 로잔 ‘서울대회’ 성공적 개최 위해 ‘기도 네트워크’ 결성

국제 로잔 리더들, 6월 한국 NCOWE 참여도 예정

로잔, 마닐라, 케이프타운에 이은 제4차 로잔대회를 2024년 6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로잔위원회(의장 이재훈 목사)가 오는 6월 인천 송도에서 국제로잔 이사회를 개최한다. 또 오는 6월 13일부터 개최되는 NCOWE VIII(제8차 세계선교전략회의, 엔코위)에 국제 로잔 이사들이 함께 참여해 세계 선교의 방향성을 두고 머리를 맞닿 계획이다.

한국로잔위원회는 25일 서울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아울러 4차 대회를 위한 기도 콘퍼런스로 중보기도 운동을 펼치고, 기존 8개 분과위원회 외에 ‘생명위원회’를 신설해 4월

초 생명주간 및 생명주일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로잔위와 제4차 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유기성 목사)는 16일부터 25일까지 송도컨벤시아와 인천온누리교회에서 제4차 로잔대회 프로그램 위원회 위원들과 국제본부 리더십을 초청해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를 통해 국제 및 아시아 로잔 리더십과 소통을 활발히 하고 국내외 목회자, 평신도 전문가, 청년대학생 등과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꾀했다.

연석회의를 마치고 다음날 진행된 이날 총회 1부 경건회에서 설교한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제4차 로잔대회 공동대회장)는 “제4차 로잔대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갱신되고 선교사역이 새로워지며 하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경호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40년 전통의 성지순례 전문여행사

let's go 이스라엘 성지순례

\$2,950

(전일정 항공포함)

예루살렘 7박8일

10월 9일 출발

베들레헴과 감람산과 갈릴리와 사해
다윗의 피신처, 유대광야와 맛사다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문의 : 213) 819-5132, 714-534-1911
주관: 세기여행사, 파이오니아 여행사

*상기 상품의 일정과 비용은 항공및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수 있습니다

한인 이민 120주년 · 한미동맹 70주년 조찬기도회

“한국, 미국에 복음의 빛과 전쟁의 빛 저”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한미 기독교지도자 조찬기도회가 3년 만에 미국 하와이 주 호놀룰루 시에 위치한 힐튼 하와이언빌리지 와이키키리조트에서 하와이 지역 지도자, 순복음복미총회 선교사, 순복음선교회 이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개최됐다.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가 주최하고 하와이 한인기독교총연합회와 하와이한인회가 함께한 이날 기도회에서는 이영훈 목사와 릭 블랭지아디 호놀룰루 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목소리를 모았다.

이영훈 목사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 한국인들은 미국에 두 가지의 빛, 곧 복음의 빛과 전쟁의 빛을 지고 있다”면서 “복음의 빛은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를 비롯해 많은 미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에 왔으며, 그들의 희생과 헌신



한인 이민 120주년 · 한미동맹 70주년 조찬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으로 한국 국민의 3분의 1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마침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하고, 아시아 최대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 “한국전쟁에서 수많은 미군들이 공산주의와 싸우다 약 3만 6000여 명이 희생했

으며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바탕으로 남북의 평화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또 “우리는 남북한 어린이들이 하나가 되는 꿈을 꾸다”면서 “마르틴 루서

킹 목사가 꿈을 꾸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그 꿈은 끝내 이루어진 것처럼 남북한 통일의 꿈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며 “북한 땅에서 고통당하는 주민들과 북한의 인권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호소했다.

릭 블랭지아디 호놀룰루 시장도 축사를 통해 “한미동맹 70주년 영상에 감명을 받았다”며 “오늘 호놀룰루 시민들도 함께 기도회에 참여하게 되어서 기쁘고 한미 동맹이 더욱 굳건하게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도회에선 순복음선교회 상임이사 김두영 장로의 기도 후 한미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영상과 서대영 하와이한인회장, 황성주 하와이한인기독교총연합회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 한국과 미국의 부흥을 위해(쥬슈야 마로코 목사), 한미 양국의 군인들을 위해(저스틴 민 인도태평양사령부 부사령관), 하와이 사회의 안정을 위해(조 오페타 목사),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알렌 바톨로메 목사) 각각 기도했다. 김진영 기자

한기총 김현성 임시대표회장 ‘출판기념회’ 적절성 논란

“정상화 기로 정기총회 앞두고 부적절” 비판 제기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가 ‘김현성 변호사가 본 한국 기독교 이야기’라는 책을 펴내고, 26일 오전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그레이스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 책은 프롤로그, 제1장 ‘변호사와 한국기독교의 만남’, 제2장 ‘한기총이 쏘아 올린 통합의 공’, 제3장 ‘한기총이 남긴 발자국들’, 제4장 ‘거꾸로 보는 목사와 종교지도자협의회’, 제5장 ‘목사 아닌 변호사 대표회장에게 묻는다’, 에필로그로 구성돼 있다.

김 변호사는 프롤로그에서 “이 책은 변호사로서 독특한 경험을 기록한 것이다. 목사가 아닌 변호사의 눈에 비친 한기총 이야기, 목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며 “일선의 목사들과 기독교인은 물론 비기독교인과 일반인들도 원로 목사들의 세계와 지도자급 목사들이 모여 있는 한기총의 막전막후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한기총의 파행으로 법원이 파송한 김 변호사가 이 시점에서 ‘한기총’을 주요 소재로 한 책의 출판기념회를 한 것을 두고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원이 그를 파송한 목적이 ‘한기총 정상화’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아직 그것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출판기념회가 웬말이나”는 것이다.

당초 한기총은 오는 31일 정기총회를 열고 새 대표회장을 뽑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표회장 임후보자가 없어 정기총회 날짜를

오는 2월 14일로 연기했다. 대표회장 임후보자 등록 기간은 1월 25일부터 오는 31일 오후 3시까지다.

한기총 정상화의 기로가 될 정기총회마저 이렇게 한 차례 연기되는 등, 한기총은 여전히 ‘비정상’인 가운데 있다. 그런 한기총의 임시대표회장인 김현성 변호사의 ‘출판기념회’를 두고 교계에선 김 변호사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은 지난 2020년 9월 21일 김 변호사를 한기총의 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파송했다. 이후 약 2년 4개월이 지났다. 한기총의 비정상성이 장기화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미 이전부터 김 변호사에 대한 비판은 제기돼 왔다.

교계 한 관계자는 “한기총이 정상화 되느냐 마느냐의 중차대한 정기총회를 앞두고 임시대표회장의 출판기념회라니 정말 낮 뜨겁다. 교계에서 이런 전례를 보지 못했다”며 “정기총회가 끝나고 임시대표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변호사가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고레스왕’을 언급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목사가 아닌 필자가 한국의 대표적 연합기관인 한기총의 대표회장을 맡게 된 것을 두고, 목사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거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며 필자에게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등장하는 ‘고레스왕’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한기총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가 그의 책 ‘김현성 변호사가 본 한국 기독교 이야기’ 출판기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 분들은 아마도 필자의 합리적이면서도 강단 있는 모습을 보고 한기총의 고질적이고 총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리 필자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하더라도 고레스왕은 필자에게 과분하고 부담스러움을 넘어 가당찮은 별명이 아닐 수 없었다”고 했다.

특히 그는 별도로 한 페이지를 할애해 성경 속 ‘고레스왕’에 대해 설명해 놓기도 했

다. 이에 따르면 고레스왕은 구약성경 이사야 45장에 등장하는 탁월한 왕으로, 바벨론으로 잡혀 와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으라며 풀어준 인물이다.

고레스왕이라는 별명이 “가당찮다”면서도 굳이 그 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은 은근히 자신을 그 왕에 비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진영 기자

CDTV 미주기독교일보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교정보
기독교일보 유튜브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TH) • MYP(6TH~10TH) • DP(11TH~12TH)

NC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213)487-5437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www.e-NCA.org

플러신학대 첫 흑인 총장, 고틀리 박사 취임

“하나님의 사람들 준비시키는 일 도울 것”

미국 플러신학대학교 사상 첫 흑인 총장인 데이비드 임마누엘 고틀리(David Emmanuel Goatley)의 취임예배가 1월 21일 오전레이크비뉴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사회를 맡은 다니엘 메이어 플러 이사회 의장의 환영사와 빅터 고도 파사디나 시장의 인사말에 이어 의장의 목적선언, 고틀리 박사의 총장 서약, 의장의 제6대 총장 취임 선언으로 진행됐다. 클리포드 팬너 박사(플러이사회)의 환영사, 월터 김 박사(전미국복음주의협회 회장)의 성경봉독, 고틀리 총장의 취임사도 있었다.

고틀리 총장은 ‘우리 모두의 마음로서의 세상’(요 3:16~21)이라는 제목의 취임사에서 “



데이비드 임마누엘 고틀리 총장이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플러의 사명은 지도자들이 어디에 있든 교회에 충실하고 효과적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교회는 좋은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세상은 좋은 교회를 필요로 하기

에, 플러는 충실한 목회, 학업, 정신 건강 및 지역 사회 지도자 형성한 풍부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플러의 능력을 확장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일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 레버튼 전 총장의 후임으로 총장에 취임한 그는 플러신학대 역사상 첫 흑인 총장이 됐다. 듀크신학교 부학장을 역임하고 ‘2018년 ‘흑인 교회학부’ 담당으로 플러신학교에 와서 신학과 선교학 교수, 흑인교회연구소 원장을 지냈다.

켄터키 출신으로 루이빌대에서 상담학(BS)을 공부하고 남침례신학교에서 목회학과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후 20년 동안 역사적인 흑인 선교 기관인 로터리해외선교회(Lott Carey Baptist Foreign Mission Society) CEO로 지냈다.

강혜진 기자

美 국무부 “北 인권특사 지명 환영, 北 인권은 우선순위”



미국의 북한인권특사로 임명된 줄리 터너(Julie Turner) ©자료사진

미국 국무부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북한인권특사 지명은, 미국이 북한의 비참한 인권 상황 해결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미 행정부는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한다”며 “북한인권특사 지명은 북한의 비참한 인권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미국의 우선순위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옹호해 왔다”며 “우리는 북한인권특사 임명 등을 통해 계속해서 북한 정권의 끔찍한 인권 기록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인권특사가 공식이었지만 국무부의 모든 고위 관리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미 연방 상원의원은 24일 RF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인권특사 지명은 긍정적인 조치이지만,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맞서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공화당의 영 김 연방 하원의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인권특사 임명은 이미 지연될 만큼 지연된 문제지만, 바이든 미 행정부가 대선 후 2년이 지나 마침내 김정은에 맞서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해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디디게 돼 기쁘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이진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지난 10월초 국무부 방한시 만난 능력있는 한국통 여성이 미국의 북한인권특사로 임명되어 매우 기쁘다. 그와 협업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혜진 기자

美 오클라호마 등 4개 주, 청소년 성전환 수술 금지법 발의

미국 오클라호마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 4개 주 의회에서 청소년들의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25일 오클라호마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소속 주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은 26세 미만의 트랜스젠더에게 호르몬 치료나 외과적 시술을 제공하는 행위를 흉악범죄로 간주한다.

캔자스주와 미시시피주에서 제출된 법안들도 21세까지 이를 금지한다. 이 밖에도 25개 주에서 드래그쇼(여장남자 쇼)를 제한하

는 조지 등 150개 이상의 법안을 제출했다.

오클라호마주는 공립학교 도서관에 성이나 성적 활동에 초점을 맞춘 서적을 비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한 바 있다.

앨라배마주는 작년 4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치료 및 성중립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앨라배마주 의회는 “미성년자에게 호르몬 차단제를 처방하는 것은 골밀도 감소 등 수많은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미증명된 과학’”이라고 비판했다.

아이비 주지사는 당시 성명에서 “아이들

은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릴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않다”며 “우리는 아이들이 삶의 취약한 단계에 있을 때,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급진적인 약물과 수술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오늘날의 사회적 압력과 현대 문화로 우리 젊은이들이 직면한 매우 현실적인 도전들이 있다”며 “주님께서 당신을 소년으로 지으셨다면 당신은 소년이고, 당신을 소녀로 지으셨다면 당신은 소녀라고 굳게 믿는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앤디 스탠리 목사, “교회 오는 동성애자, 나보다 믿음 좋아” 설교 논란

조회수 60만 회 이상 기록

앤디 스탠리(Andy Stanley) 목사는 “교회에 다니는 동성애자들의 믿음이 나보다 더 크다”는 설교로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위치한 노스포인트미니스트리(North Point Ministry)를 이끌고 있는 스탠리 목사는 최근 트위터에 올린 설교 영상에서 “교회 내 성소수자 공동체는 중요하고 신실한 일부”이라며 “자신들이 받는 대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동성애자는 나보다 믿음이 더 강하다. 그들의 믿음은 당신보다 더 큰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해볼 거야”라고 하는 동성애자가 있고, 이성애자로서 어디로 갈지, 또한 계속해서 받아들여질지 확신이 없는 이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2세, 13세, 14세, 15세 때 마음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경배하고 싶어하는 동성애 남성과 여성들이 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들에게서 우리는 배울



앤디 스탠리 목사.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점이 있다”며 “교회가 성소수자 기독교인을 계속 환영하자”고 격려했다.

27일 오전 현재 스탠리의 해당 설교는 6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조나단 메릿(Jonathan Merritt) 작가는 “동성애자(또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를 하나님의 식탁에 환영하자는 제안에 화가 난다면, 당신은 복음서 읽는 것을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일 것”이라며 스탠리 목

사를 지지하는 트윗을 올렸다. 이 트윗은 다양한 반응과 함께 약 800개의 좋아요 수를 기록했다.

‘데렉 더 헤레틱’(Derek the Heretic)으로 알려진 데렉 마이어스(Derek Myers)도 스탠리 목사의 설교를 트윗하며 “나는 앤디 목사나 그의 교회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성소수자를 포용하는 것에 모호한 교회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이 큰 소리로 긍정하지 않는 한, 당신은 같은 편이 아니”라고 했다.

또 다른 이들은 스탠리 목사와 다른 기독교인들이 성소수자 기독교인 공동체를 얼마나 환영할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그는 성소수자들의 심일조를 기꺼이 거두지만, 성소수자들은 2등시민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예배 참석할 수 있지만 (활동에) 참여할 수는 없다. 그것은 (돈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일이다. 참석하지 말라”고 했다.

또 다른 사람은 “그것은 당신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달려 있다. 그는 들고 있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바나그룹 “미국인 74%,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해”

조직화된 종교에 대한 거부감이 증가함에 따라 불구하고 미국인 중 50% 미만이 공식적인 교인이라고 대답하고, 미국인 대다수가 하나님 혹은 더 높은 힘을 믿고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한다고 답하는 등 영적 개방성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같은 결과는 여론조사 기관 바나그룹이 지난 2022년 10월 미국 성인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왔다. 이 조사 응답자의 77%가 더 높은 힘에 대한 신앙을 표명했으며 74%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답했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44%는 팬데믹 이전보다 하나님께 더 열려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약 80%는 세상에 영적이거나 초자연적인 차원이 있다고 확신하거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11%는 가능할 수 있지만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고

답했고 9%는 영적 세계에 대한 신앙이 없다고 답했다.

이 조사 결과는 2018년 발표된 퓨리서치의 데이터와 유사하다고 CP는 전했다. 당시 미국인의 80%가 신을 믿는다고 답했지만, 약 3억 2700만 미국인 중 극소수만이 성경에 설명된 신을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나그룹의 CEO의 데이빗 킨나만은 “우리의 새로운 데이터는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희망의 원인을 제공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종교적 소속과 교회 출석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영적 개방성과 호기심은 증가하고 있다. 사실 모든 세대에 걸쳐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려는 전례 없는 열망, 영적/초자연적 차원에 대한 믿음, 신 또는 더 높은 힘에 대한 믿음을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연구보고서 ‘열린세대’의 결과를 기반으로 열린 세대의 가장 고무적인 특징 중 하나는 “청년들이 이러한 영적 굿주림의 증

가를 부채질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암모적으로 오늘날 기독교인 십대들은 예수가 여전히 그들에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들 중 76%는 ‘예수님은 내 삶과 관련된 방식으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답했다”라며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의 명성을 떨어뜨리고 주일예배 및 기타 교회 관련 활동을 사회의 부수적인 것으로 격하시키는 문화에서 십대들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예수께 열려 있다”라고 했다.

킨나만 CEO는 “열린 세대(The Open Generation) 연구와 함께 미국에서 증가하는 영적 개방성에 대한 우리의 데이터는 신앙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보여준다. 미국인 대다수는 영성 탐구를 기꺼이 고려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진정으로 만족시키는 더 많은 것에 열려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미경 기자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후 12:50
주일예배 2부 오후 12:50
수요나눔 교역자 오후 9:30
수요중보기도 오후 8:30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이미애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오전 5:30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한주봉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화요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전 10:00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이현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00
교육부예배 오후 12: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30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송재봉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목요중보기도회 저녁 8:0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463-9899

박자상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JOE HONG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

ISAIAH LEE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장경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069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제임스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남상권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6:30(토)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김상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In Christ Christian Church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안상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오상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EM/교육부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금요성구탐구 오후 7:30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김창곤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남가주은혜선교회

300 Vallejo Dr. Glendale, CA 91206
T. (310)713-3006

차권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집회 저녁 7:00
토요비전새벽기도회 오전 6:00

늘워장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 (213)598-6878

강은덕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전 9:30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kdk@hanmail.net

김영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30
어르신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더섬기는교회

4100 W Commonwealth Ave #102, Fullerton, CA 92833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정용암 담임목사

주일예배 낮 12:00
수요TEE성경공부 오전 10:00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신용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어린이주일학교 오후 2:30
화요일성경학기 오후 7:30
토요일참기교회 오전 7:30

로고스라이프교회

4872 Bishop St. Cypress, CA 90630
T. (714)673-2141

정달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김명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아침기도회 오전 6:30(화-토)
중보기도회 오전 10:00(주일)
스크립 성경공부 오전 10:00-12:00(수)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92506
T. (909)247-7355

서민수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저녁 7:30
아침기도회 오전 6:30(목,금), 오전 6:00(토)
리크레센타 주일예배 9부 오후 2:30
(2801 Montrose Ave, La Crescenta, CA 91214)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장현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일아침기도회 오전 8:00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 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지동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윤혁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30 / 토 오전 6:00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신현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곽태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장동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6:00(토요일)

선민교회

3388 W. 8th St. #204, Los Angeles, CA 90005
T. (213)700-5638

임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성경공부 평일 저녁 6:30

섬김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8129

이석기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김요한 담임목사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수요저녁기도회 오후 8:00
금요일아침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6:30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정찬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30
아침기도회(온라인) 오전 7:00(화-토)
기도모임 오전 11:00(화)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김지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시 [세대가 함께 하는]
주일학교 & Youth 오후 1시 30분
금요성경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
청년부 주일예배 저녁 8시
수요(온라인) 새벽기도 수요일 새벽 5시 30분

원웨이침례교회

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최주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00
수요기도회 오후 8: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표희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어린이 & Youth 오전 11:45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류연중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김성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30 /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주백성교회

3020 Wilshire Blvd, #100, Los Angeles, CA 90010
T. (818)633-1241

양수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권혁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나눔 코이 모임 오후 6:00(월)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조 인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ccc.com

류광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youth모임 오후 7:00
목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김용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및 성경공부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6:30(월-토)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정하이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크로스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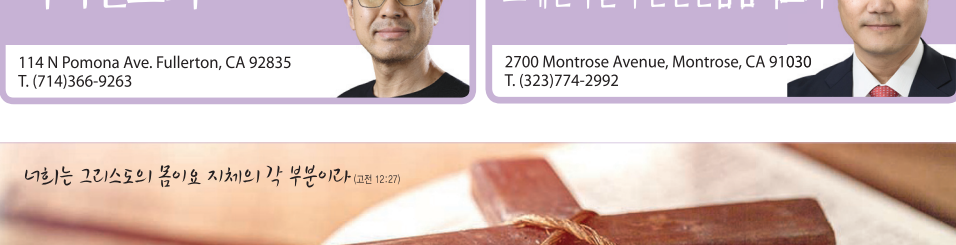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오홍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오정시)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주일예배 3부 저녁 언체드(오정시)
주중예배 목요일 오후 8:00(한어) / 금요일 오후 8:00 (영어)
파워워십 2번매주 금요일 오후 8:00(영어) / 4번매주 목요일 오후 8:00(한어)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양국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중보기도회 오전 6:00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odsgc@gmail.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글렌데일, LA북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새벽예배) 오전 9:15(새벽예배) 월요일(오) 오전 6시
3부예배(새벽예배) 오전 11:30 (토) - 월요일예배
대학원부/EM 오후 2:00 수요일(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섬기며, 이민가정을 치유하여,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ken 고지)
T.(213)386-2233

씨니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833-9090

최순환 담임목사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1:0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310) 905-2228 / newchurchdttla.com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석예배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323) 735-6412 / gmcchurchc.com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323) 913-4499 / F.(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교회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통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신령 새음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562)674-3016, cell.(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연 담임목사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신교와 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626) 810-3455 / F.(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실과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213) 618-0614
lordslow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213) 749-4500 / F.(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0:30 목요찬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366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마침내)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909) 595-3110 hnsa@hnsa.org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토)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909)396-4441 www.wgmc.org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 고등 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818) 366-0089 / www.wkum.com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벽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고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미 법원, '성전환 케이크 제작 거부' 기독교 제빵사에 유죄 판결

재판부 "차별금지법 해당" ADF "신앙자유 소송 이어갈 것"



미국 기독교인 제빵사 잭 필립스 ©크리스천포스트

성전환 기념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미국의 기독교인 제빵사 잭 필립스가 항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26일 콜로라도 항소법원의 재판부 3인은 콜로라도 소재 마스터피스 케이크숍(Masterpiece Cakeshop)의 주인인 잭 필립스가 성전환을 기념하는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결론내렸다.

2017년 트랜스젠더 남성이자 변호사인 오펜 스퀘르디나는 필립스에게 접근해 자신의 성전환을 자축하기 위한 케이크 제작을 요구했고, 제빵사가 이를 거부하자 2019년에 그를 고소했다.

티머시 솔츠 항소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스퀘르디나는 메시지가 다른 디자인적 요소 없이 분홍색과 파란색으로 된 맞춤 케이크를 요청했다"면서 "그가 트랜스젠더임을 밝히고 자신의 생일과 성전환을 기념하기 위해 케이크를 사용할 의도를 밝힌 후에야 마스터피스와 필립스는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 따라서 스퀘르디나의 트랜스젠더 상태와 이를 축하하기 위해 케이크를 사용하려는 바람을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필립스가 요청받은 케이크가 "어떤 메시지도 나타내지 않았다. 모든 행위가 말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며 신념에 반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강요했다고 그의 주장을 기각했다.

2021년 6월 덴버 지방법원은 필립스가 성전환 기념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것이 콜로라도차별금지법(CADA)을 위반했지만, 해당주의 소비자보호법(CCPA)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브루스 A. 존스 덴버지법 판사는 판결에서 "케이크 디자인이 더 복잡하거나, 예술적인 관련이 있거나 피고(필립스)로

부터 나온 메시지를 명백하게 진술했다면 분석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케이크로 전달되는 모든 메시지가 피고인에게 귀속된다는 합리적인 관찰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 표현적 행위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요청받은 성전환 케이크가 수정헌법 1조의 "상징적 또는 표현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필립스는 앞서 콜로라도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이 아니었던 2012년 동성혼 축하 웨딩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으나 2018년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필립스의 법률 대리를 맡은 자유수호동맹(ADF)은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을 비판하며, 기독교인 제빵사를 겨냥한 트랜스젠더 운동에 맞서 항소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제이크 워너 ADF 선임 변호사는 성명에서 "10여 년 전, 콜로라도주 관리들은 책임 지지 않는 말을 하게끔 주 법률을 악용해 그를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LGBT) 활동가인 변호사가 타도 운동을 이어갔다"면서 "이러한 잔인함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콜로라도주) 정부가 잭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모든 미국인은 자신이 믿는 바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유진 기자

美 전국투어 앞둔 가수 레크레 "하나님 은혜 간증할 것"



미국 크리스천 래퍼인 레크레가 플로리다주 올랜도를 시작으로 오는 3월 17일부터 5월 14일까지 26개 도시 투어에 나선다. ©Jackie O. Asare

오는 3월부터 26개 도시서 '처치 클로저 투어' 개최

미국 '그레미상'을 4년이나 수상한 미국 기독교인 힙합 가수 레크레(Lecrae)가 올해 열릴 전국 투어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담아 두신 것을 나누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레크레는 3월 17일 플로리다주 올랜도를 시작으로 5월 14일까지 전국 26개 도시를 순회하는 '더 파이널 처치 클로저'를 진행한다. 투어 공연에서 그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발매한 믹스테이프 '처치 클로저' 시리즈 곡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레크레는 CP와의 인터뷰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과 마음에 행하신 일들을 나누게 되어 기쁘다"면서 관객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음악적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처치 클로저' 시리즈 중 1집부터 3집

은 기독교 음반으로 발매되었으며, 4집은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업한 13곡을 수록했다. 최근에는 '스프레드 더 오프스'(Spread the Opps)와 '스틸인 아메리카'(Still in America)는 뮤직비디오로 제작해, 신앙적 메시지와 텍사스 원주민이 바라본 사회적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레크레는 음악이 자신의 "정의롭지만 한쪽 방향으로만 도는 면을 모두 보여준다"라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이번 투어에 관객들의 참여를 기대했다.

그는 "하나님께 제게 축복해 주신 많은 지혜가 있다. 수년간 많은 팬들은 신뢰할 만한 공간과 장소를 경험하지 못했다"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셀 수 없이 많은 영광을 경험했고, 은혜와 친절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그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2020년 그는 신곡 '레스토레이션'(Restoration)을 끝으로, 처치 클로저 4집을 제외한 주요 음반 발매에서 은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교황, “동성애 범죄 아냐... 법적 처벌은 부당” 주장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며,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4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힌 뒤 “하느님께서 모든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했다.

현재 전 세계의 67개국은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11개국은 이를 사형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로 여기고 있다.

교황은 세계 일부 지역의 가톨릭 주교들이 동성애 범죄화를 지지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문화적 배경에 따른 것으로, 주교들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처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했다.

교황은 더 나아가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은 부당하며 가톨릭교회가 동성애 범죄화 법안의 폐지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가톨릭교회의 교리문답을 인용해 “동성애자들은 환영받고 존중받아야 하며, 소외되거나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자녀이며, 하느님께서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우리 각자가 존엄을 위해 싸우는 힘을 사랑하신다”고 했다.

그러나 교황의 이 같은 발언은 동성애를 죄로 인정해 온 가톨릭교회의 입장과



프란치스코 교황. ©pixabay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황은 이를 의식한 듯 “가톨릭에서 말하는 죄와 세속사회에서의 범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범죄가 아니지만 죄이기도 하다. 먼저 죄와 범죄를 구분하자. 서로에 대한 관용이 부족한 것도 죄”라고 주장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즉위 후 동성애자에 대한 존중과 차별 금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에는 반대해 왔다.

교황청은 지난 2021년 동성결합을 인정하거나 옹호하지 않으며, 가톨릭교회는 이를 축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해진 기자



교회로 향하는 수단 교인들의 모습. ©www.samaritanspurse.org

수단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목사 등 살해

기독교 박해 소식을 다루는 모닝스타 뉴스가 아프리카 수단에서 최근 교회 목사와 다른 세 명의 기독교인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의 총에 맞아 숨졌다고 지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수단 남부 코르도판 주의 수도인 카두글리의 한 시설에서 밤을 보내던 중 가해자들의 총격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고향으로 가는 길에 이곳에서 밤을 지내고 있었는데 그 때 가해자들이 오전 3시에서 4시 사이 그들을 총살했다고 지역 교회 지도자가 말했다고 한다.

모닝스타뉴스는 “2011년부터 이 지역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해 온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마을 안팎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으며 목회팀이 밤에 도착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라고 보안상의 이유로 이름을 밝히지 않은 교회 지도자가 말했다”고 전했다.

수단 기독교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희생자 가족들에게 충격과 애도를 표했다. 한 기독교인은 한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의) 가족과 나머지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한다”고 썼다.

살해당한 네 명의 기독교인의 시신은 매장을 위해 하르툼으로 이송되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또 보도에 따르면 남서부 수단의 남 다르푸르 주에서는 1월 8일 니알라 마을에서 두 명의 기독교인이 국가 안보 요원으로 추정되는 복면을 쓴 남성들에 의해 체포되었다고 현지 소식통이 말했다. 그들은 같은 날 혐의 없이 풀려났다고 한다.

보안상의 이유로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두 개종자는 아침 7시에 한 지역 집에서 정부 차량에 탄 남성들에게 체포됐다고 한 소식통이 말했다. 무슬림 셰이크(

교사)들은 그들이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비난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모닝스타뉴스는 “2019년 이슬람 독재가 종식된 후 수단에서 종교의 자유가 2년 동안 발전했다”며 “(그러나) 2021년 10월 25일 군사 쿠데타와 함께 국가 차원의 박해 유령이 다시 나타났다”고 전했다.

수단의 기독교인 인구는 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 4,300만 명 중 4.5%로 추산된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 4월 바시르가 30년 간의 권력에서 축출된 후 과도기적 민간 정부는 일부 샤리아(이슬람법) 조항을 무효화했다. 이로써 모든 종교 집단을 ‘이교도’로 분류하는 것을 불법화했으며, 따라서 이슬람을 떠나면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배교법을 효과적으로 폐지했다고 한다.

그러나 2021년 10월 25일 쿠데타로 수단의 기독교인들은 이슬람 율법의 가장 억압적이고 가혹한 측면이 다시 나타날 것을 두려워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2019년 9월부터 총리로 과도정부를 이끌었던 압달라 함독은 거의 한 달 동안 가택 연금 상태로 구금된 후 2021년 11월 미약한 권력 공유 합의로 석방 및 복직되었다고.

오픈도어의 ‘2023 World Watch List’(기독교 박해 순위)에서 수단은 10위를 차지했다. 미 국무부의 국제종교자유보고서(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는 배교에 대한 비범죄화와 교회 철거 중단으로 상황이 다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보수적 이슬람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독교인들은 교회 건물 건축 허가 취득 문제를 포함해 차별에 직면해 있다고.

이미경 기자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오전 9:00, EM예배 (2부)오전 11: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OC제일: 금요일 오전 7:30, 주일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금요성경연구회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183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1, (818)303-8887

최혁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플라세(Calling), 고치교(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 549-9199 / choonhyun.org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사우스베이, 오렌지카운티 지역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와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유주부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선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2부 11:00, 주일예배 오전 6:00(월-토)

김정훈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경연구회 오후 1:00, 금요예배 금요일 저녁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김경환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이중용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벰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1:00, GRC(EM)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한국교회토요일 오전 9:00

방상용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연합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기든구국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한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에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N)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백정우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내가 나를 사랑하는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N)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안창훈 담임목사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지영한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서서 오전 9:30(금), 찬양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림혁춘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생일 생일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요일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15, 주일학교 오후 1: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용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등한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받은교회, 세계선교를 이루리라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2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 월일 오전 5:30, 주일예배 오전 11:00am (매일 두번예배),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한기홍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otmail.net

주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GRAND OPEN

올코샵 그랜드 오픈

KIDOK SHOP과 함께 합니다.

www.kidokshop.com

BEST SELLER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은단!

대한민국 1등 비타민, 75년 신뢰의 건강파트너입니다.

고려은단

미국 공식판매점

본 판매처의 제품은 올코샵이 보증하는 100% 정품입니다.

한국인 영양에 딱!!
식습관이 다르면

비타민도 달라져야죠



9년 연속 대한민국 1등 비타민

기초건강 향산화 에너지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은단



정상적인 면역기능까지 모두 한 알에 담았습니다.



멀티비타민

비타민C와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리비스타 종아리 압박밴드

이제 주무르지 마세요

20-30mmHg의 단계적 압박

1+1

- 혈액순환 개선
- 혈류 촉진
- 붓기 완화
- 통증 완화

리비스타 어깨밸런스 BEST SELLER

등이 펴지면 인생도 펴진다

100% 국내생산

1

\$45 \$38

두껍고 둔탁하게 일지 말고 무봉제 기술로 얇고 가볍게!

“바른 자세” 이렇게 쉬웠어?

리비스타 어깨밸런스 슬림 바른자세 고정밴드 허리 등 목 고정기

착용 전

착용 후

하나사면 하나공짜

1+1

400 \$199

슈에뜨와 함께 새해를 출발하세요

녹는 콜라겐 마스크팩

슈에뜨에서 공개하는 첫번째 스페셜 아이템

CHOUETTE 3초만에 흡수되는 녹는 마스크 패치로 콜라겐과 비타민 충전!

콜라겐 비타민 패치 이마 타입 Collagen Vitamin Patch forehead	콜라겐 비타민 패치 눈 타입 Collagen Vitamin Patch Eye	콜라겐 비타민 패치 볼 타입 Collagen Vitamin Patch Cheek
---	---	---

초미세 흡수력
3초만에 흡수되는 5만 나노 하이퍼 패치

식물성 비타민 C
1,000ppm 함유

수용성 콜라겐 99.9%
인체 콜라겐과 유사한 수용성 콜라겐
간편하게 피부관리 하세요!



1:1 카카오톡 채널 실시간상담!

기독샵 바로가기

Step 1. 핸드폰 카메라 앱 켜기
Step 2. 좌측 QR코드 스캔

www.kidokshop.com

도소매 문의 환영

전화 상담
213-235-6663

KIDOK SHOP

Undergent

RIVISTA

SNOOZY SOCKS

Sulwhasoo

공식판매처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은단

공식판매처 CHARMZONE NC1

교회단체 행사선물 도소매 판매점 문의

erom

매장주소

3055W.7th Street
Los Angeles CA90005

강준민 칼럼

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할까요?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 4:13).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엡 4:15). 우리가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하는 것은 평생의 과업입니다. 단기간의 성장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복 받은 사람의 모습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묘사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시 1:3).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뿌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렘 17:8). 이 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의 나무”라고 말합니다(사 61:3).

하나님은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길 원하십니다. 또한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길 원하십니다. 버섯은 몇 시간이면 자랍니다. 호박은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 성장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로 성장한다는 것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견고합니다. 땅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가무는 때에도 깊은 뿌리에서 생수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무는 때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오래된 나무는 더 깊숙이 아래로 자라는 일을 계속합니다. 높이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아래로 자라야 합니다. 오래된 나무의 비밀은 오랫동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서서 오랜 세월 폭염, 폭풍우, 그리고 겨울의 거센 추위를 견뎌내면서 강하고 거대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견딘 나무는 오랫동안 쓰임 받게 됩니다. 견딤이 있을 때 쓰임이 있습니다. 견딤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를 결정합니다.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생수를 만나게 됩니다. 생수는 비가 오면 생겼다가 마르면 사라

지는 물이 아닙니다. 땅속 깊숙이 흐르는 생수는 결코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원천이십니다. 생수의 근원이십니다(렘 17:13). 지혜로운 사람은 거듭 근원으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원천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은 지속적으로 생수를 공급받습니다.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요 15:3; 엡 5:26). 생수는 성령님이십니다(요 7:38-39). 생수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요 19:34; 요일 5:6).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성령님과 보혈의 생수를 통해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보이는 것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나무보다 중요한 것은 나무의 뿌리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영혼입니다. 우리 속사람을 늘려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엡 3:16). “우리의 겉사람은 남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고후 4:16). 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할까요?

첫째, 성장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될 때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약 4:6).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마 5:5).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둘째, 성장을 통해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구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기잡이를 나가는 사람은 고기를 잡는 데 필요한 것을 구비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것을 구비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으로 잘 준비되게 됩니다.

셋째, 성장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이 알아봅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이 포착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준비는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지 않습니다.

넷째, 성장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창 12:3). 우리는 성장을 통해 선한 영향력의 지경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성장을 통해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요 15:8). 성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지적 성장, 지혜의 성장, 정서적 성장, 인격의 성장, 영적 성장, 관계의 성장, 그리고 기술과 시스템의 성장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송재호 칼럼

기독교신앙과 영성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궁금한 단어 중 하나가 ‘영성’(靈性, spirituality)이란 단어일 것입니다. 사실 ‘영성’(靈性, spirituality)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질문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21세기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세 단어를 소개하면서 1)영성 2)치유 3)가정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문명과 자본주의, 이성주의 등이 생겨나면서 우리의 관심에서 영성이라는 단

어가 멀어져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인 우리는 스스로 영적인 목마름과 갈망을 경험하게 되면서 영성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조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성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최근에 글을 쓰면서 어떤 글을 보니 “영성”이라는 단어가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주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경적으로 “영성”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란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학자들은 “영성”이라는 단어 대신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성”이란 단어를 기독교인으로서 쓰지 말아야 할 이유는 “영성”이라는 단어는 일반 종교에서나 사용하는 단어로서 동양의 신비종교나 자기초월, 뉴에이지(New-Age) 등의 영향을 받은 단어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영성운동을 하는 여러 리더들이 모두 그런 선상에 있는 사람들로 오해를 받아 비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성”(靈性, spirituality)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신령스러운 품성이나 성질”이라고 정의하고 있

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풀어서 정의하면 ‘어떤 종교의 가르침이나 정신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단어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브래들리 한센라”라는 학자는 “영성이란 인간의 삶의 본질과 목적에 관한 확신에 따라서 사는 한 개인이나 한 공동체의 삶의 스타일이다”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물론 “영성”이란 모든 종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영성”이란 의미는 기독교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과 다른 종교들에서 말하는 “영성”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 라는 중요한 질문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이점을 찾다면 기독교에서의 영성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교제”에서 시작되고 완성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영성”은 “자기 초월적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예로 불교에서의 영성은 “불경”에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가? 없는가?에 초점을 맞

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슬람도 알라로부터 받은 “코란”이라는 율법대로 사는 삶을 강조하고 있지 알라와의 교제에 대한 부분을 영성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이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바른 관계와 교제로 생겨나고 완성 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스스로를 완전하게 할 수 없고 완벽하게 자신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영성은 무엇을 보거나 무엇을 체험해서 더 나은 존재가 되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함으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기독교 영성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영성을 자신의 완성됨으로 착각하고 오해 했던 것입니다. 바라는 지금까지의 영성에 대한 오해와 시도를 뒤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혜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스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베르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기독교샵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교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웹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www.Kidokshop.com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elcollisioncenter@gmail.com

30년 사고보정 경험우선반환보증입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업무의 정성이 한 가득...
이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참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진유철 칼럼

작은 승리의 경험이 큰 승리를 이룬다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남미 하면 떠오르는 것 중의 하나가 축구입니다. 월드컵 같은 큰 축구시합이 있는 날은 학교도 안가고, 가게도 문 닫고, 관공서도 때론 일을 안 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가 생각했었는데, 살아보니 그 기분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축구경기 중에서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승리하게 되면, 그때마다 관심과 열정이 쌓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한일월드컵에서 한국 축구가 4강 신화를 이룰 때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한국 축구가 예선전 첫 경기에서 폴란드를 이길 때 사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유럽의 강호 포르투갈을 이기면서 16강에 올라가게 되자 축구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가슴에까지 열정의 불이 붙기 시작하여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16강에서 이탈리아를 이기니까 “야, 우리도 잘하면 되겠구나!” 자신감이 생기고 꿈이 생겼습니다. 8강에서 스페인을 격침시킬 때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중계하던 아나운서도 울고 해설자도 붙잡고 울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승리를 경험함을 통해서 열정이 생기고 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축구시합이 주는 승리의 경험과 비교도 안되는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패배가 있을 수 없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승리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함에 쓰인 이름 가운데 하나가 “야웨 닛시”,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심으로, 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우편 강도가 믿을 때 낙원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인간 삶을 패배케 하는 죄에 대해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병이여의 기적 등을 통해 인간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삶을 부자유로 억압하는 가난과 저주도 이기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심으로 인간을 패배케 하는 질병을 이기셨습니다. 귀신들을 내쫓아 주심으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에게 가장 큰 패배의 고통은 죽음과 영생 지옥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인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

사랑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랑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전 15:55-57)라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신앙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승리를 이룬으로는 아는데 경험할 수 있는 열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화려함과 미혹에 빠져 믿음의 행동이 없는 것입니다. 평소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으로 인한 작은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믿음의 승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열정과 꿈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의 사명으로 하나 된 엘살바도르 단기선교와 3월 달에 있을 콜롬비아 단기선교, 또 각 기관을 통한 봉사과 교구와 구역을 통한 섬김의 수고가 평소의 승리를 경험하는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인수 교수의 한국교회사

평양신학교와 조선신학교의 설립(1)



김 인 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1938년 장로회 제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 안을 불법 통과시키기 몇 달 전인 5월에 평양 장로회신학교는 신사참배문제로 무기 휴교에 들어갔다. 재학생들은 통신교육으로 과정을 마치게 하고 졸업을 시켰으나, 교단의 유일한 교역자 양성기관인 신학교가 문을 닫자, 교역자 양성의 길이 막혀 버렸다. 총회는 어쩔든 교역자 양성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다시 신학교를 시작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선교회가 만 1개년이나 자의로 개교치 아니하고 또 연기하오면 본 총회 직영으로 금후에는 당연히 개교”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터져 나왔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보수적인 선교사들이 모두 신학교에서 물러가고, 한국 교회의 정통 보수의 보루임을 자처하던 박

형룡 박사도 신사참배를 피해 국외로 도피해 버렸다. 또한 보수적인 목사들 대부분이 투옥된 상태에서의 신학교 재건은 당연히 자유주의 신학적 배경과 친일적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발기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일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채필근(蔡弼近) 목사였다. 이에 서울의 김영주, 차재명 목사가 동조하였고, 김대현(金大鉉) 장로가 30만 원의 재정을 부담하겠다고 나서 ‘조선신학교 설립을 위한 기성회’가 1939년 3월에 발족되었다.

신학교 재건 안은 그 해 28회 총회의 인준을 받아 그 설립이 눈앞에 왔으나, 같은 해에 평양에서 평양장로회신학교 재건운동이 일어났다. 서북 지방의 인사들이 장로회 총회를 요리하던 때에 평양에 있던 신학교가 서울에 선다는 것은 그들에게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에 그 지방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평양에 신학교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일은 빠르게 추진되어 채필근 목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로회신학교 기성회가 조직되었으며, 평양 학무국을 통해 제출된 신학교 인가서가 1940년 2월 총독부로부터 발부되어 신학교 개교를 할 수 있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조선신학교 설립에 앞장섰던 채필근 목사가 평양신학교 교장으로 옮겨 갔다.

이들은 신학교 설립의 인가를 받았지만, 신학교를 운영할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 평양 장로회신학교는 선교사들의 소유였기에 그 곳에서 마음대로 신학교를 운영할 처지가 못 되었다. 이에 총회는 선교부에 신학교 건물 사용을 청원하였으나 신사참배 하는 총회와 관계를 끊은 선교부는 “신앙양심으로 기존 신학교 시설 일체의 사용을 허용치 않기로 결의”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선교부가 이의 사용을 거부하자 일부 과격한 학생들과 인사들이 신학교 건물로 무턱대고 밀고 들어가 강제 점유 했으나, 일제 당국이 이를 허용치 않아 결국 물러가고 말았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최악태 씨 소유인 전 동덕학교 교사를 사용하다가 급추기(今秋期)부터 마포기념관과 서문밖교회 하층에서” 신학교를 시작하였다. 이때 과거 신학교에 있던 학적부를 비롯한 모든 서류 일체를 넘겨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 역시 선교부에 의해 거부되어 정통성 없는 신학교로 몰골 흉한 출발을 한 셈이 되었다.

한편 조선신학교 설립을 추진하던 이들은 신학교 인가를 총독부로부터 받지 못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1940년 3월

경기도 지사의 강습소 인가를 받아 그 해 4월 서울 승동교회에서 개원하였다. 김대현 장로가 학원장이 되었고, 김영주, 함태영, 조희립, 한경직, 윤인구, 김관식, 오건영 등이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김재준 목사가 교수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이 신학교는 김재준 목사가 한국 신학은 선교사들이 전수해 준 신학으로 한국인의 신학이 전무(全無)하다는 자유주의적 경향을 가진 신학으로 출발하였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이 신학교와 더불어 보수적 경향의 지도자들과 길을 달리할 조짐을 출발 때부터 내비치고 있었다.

이 신학교의 출발 시점이 아무리 암울했던 시기였고, 일제의 강제가 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센 때였다고 해도 이 신학교의 설립 목적을 “복음적 신앙에 기해서 기독교 신학을 연구하고, 총량유위(忠良有爲)한 황국의 기독교 교역자를 양성한다.”고 했을 때, 이미 그 친일적 성격이 분명히 드러났다. 또한 1941년 “선교사들을 매도하여 한국 교회 주체성 무시를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개교한 조선신학원이 일본 사람 송본탁부(松本卓夫)를 이사장으로 앉혔을 때” 이미 그들이 친일적인 모습으로 현실에 타협하고 있는 한계가 뚜렷이 나타났다.



FI PLUMBING
213-434-8947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FI PLUMBING

저희는 고객님의 편안한 생활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최고의 기술과 정직한 가격으로 고객님의 만족할때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ABOUT US:
24시간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플러밍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CONTACT INF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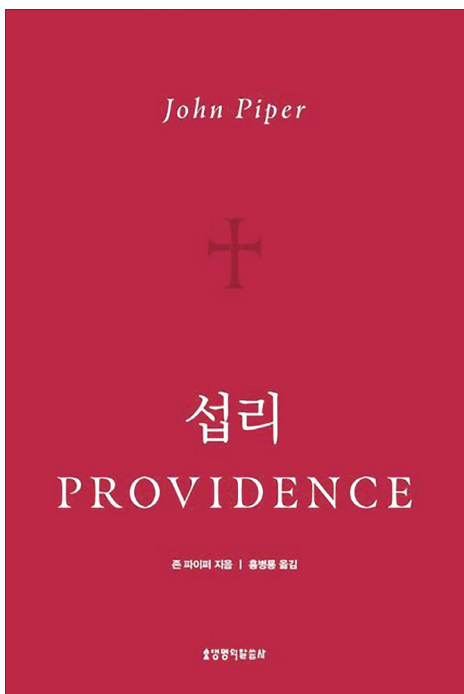
CALL:
213-434-8947
flplumbing2022@gmail.com

MORE CONTACT INFO:

 @FIplumbing
 @FIPlumbing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하나님의 주권에 전율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믿음'



섭리
존 파이퍼 | 홍병룡 역
생명의말씀사 | 760쪽

정말 달콤하고도 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걸 포괄하고 편만하며 불가항력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주를 향한 궁극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실 것이다.

2022년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서 주최한 최고도 컨퍼런스에서 존 맥아더 목사와 존 파이퍼 목사는 패널토의 중 이 책 <섭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존 맥아더 목사는 이 책이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다루고 있으며 손에서 놓을 수 없을 만큼 흥미롭고 유익한 책이었다고 칭찬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오랜 세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책을 쓰고 싶었으며 '하나님께서 뭐든지 뜻하신 대로 하신다'는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에 관한 질문,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시는가?'에 관한 대답이 바로 <섭리>라고 말했다.

새 성경을 구입하고 섭리에 관한 모든 성경 구절에 표시한 후, 그것을 본문만 인쇄하고 나서 두 번의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완성한 책이 바로 이 책 <섭리>라고 말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엨 1:11)"로 소개한 하나님은 정말 "모든 일"에 주권적이다.

존 파이퍼는 그것을 제3부 '섭리의 성격

과 범위'에서 설명한다. 자연을 다스리는 섭리, 사탄과 귀신을 다스리는 섭리, 왕들과 열방을 다스리는 섭리, 삶과 죽음을 다스리는 섭리, 죄를 다스리는 섭리, 회심을 다스리는 섭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스리는 섭리.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특히 회심을 다스리는 섭리에서는 성도의 태하심, 의롭다 하심, 거룩하게 하심, 영화롭게 하심 등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증명한다.

또한 성도의 삶 가운데 순종, 명령이 주어 진 것을 가지고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역지로 구분해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초로 우리가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신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밝힌다(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3).

결국 섭리는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은혜의 주권 안으로 들어가게 만든다.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때, 도저히 넘지 못할 것 같은 난관이 바로 '악의 문제'이다. 어떻게 하나님은 악이 활동하는 것에 섭리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절대적으로 선하실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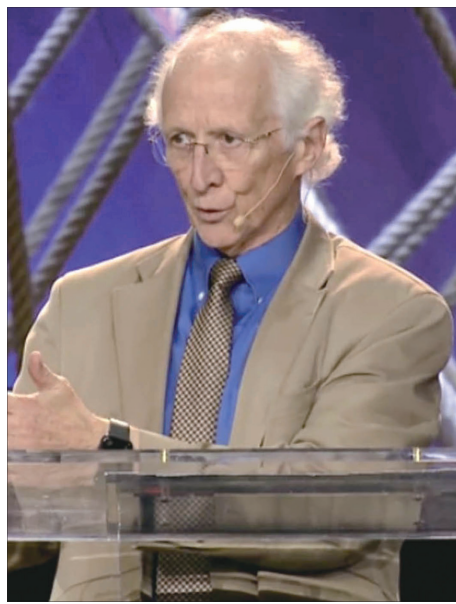
존 파이퍼는 이렇게 감추어진 뜻을 밝히려 애쓰지 않는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내용 즉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 타락한 천사를 통해, 악한 세상을 통해, 또 죄인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악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 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라고 설명한다.

파이퍼는 제2부 '섭리의 궁극적 목표'에서 태초와 이스라엘 역사, 새 언약의 약속을 다루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피조물인 우리가 그것을 영원토록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리고 존 파이퍼가 모든 책에서 말하는 중심 내용,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할 때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강조한다.

바로, 이 균형점이 섭리를 잘 소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뭐든지 하신다는 것에 이의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해로운 일이면 어떻게 하는가?

파이퍼가 '기독교 회락주의'를 주장하며 지금까지 강조해온 것이 바로 이것이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열심은 최상의 복을 추구하는 우리의 열심과 결코 경쟁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최상의 복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



존 파이퍼 목사 ©Sing! 2022 Conference

한 믿음이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만족을 얻으려 하거나 내가 볼 때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을 무조건 얻는 것이 복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금세 실망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즉 그리스도의 영광과 기업의 풍성하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온전히 그 섭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존 파이퍼의 <섭리>는 760쪽에 달하는 대작이다. 분량에 비해 읽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성경을 많이 인용하여 자기 주장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압도적으로 많은 성경 본문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토록 풍성하고 아름답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에 독자는 전율하게 된다. 그것이 저자가 원하는 바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네 가지 초대를 하기 원한다고 밝혔다. ①경이로운 세계 ② 실제 세계 ③하나님께 매료된 세계 ④하나님을 아는 세계.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이 책을 통해 조금 맛보는 것만으로도 독자들은 경이롭고 살아계시며 매력적인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참으로 알면 알수록 우리를 만족시키고 예배하게 하며 감사와 경배를 바치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매일의 삶에서 섭리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자.

조정희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8

Brothers and sisters, whatever is true,
whatever is noble, whatever is right,
whatever is pure, whatever is lovely,
whatever is admirable - if anything is
excellent or praiseworthy - think about
such things. PHILIPPIANS 4:8

2023. 1. 4.H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프로지골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증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혈당조절! 면역기능! 세포분열!

-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 산화아연이 아닙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글루콘산아연(zinc gluconate)이 들어 있습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당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망막염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해당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 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1, (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커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해당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 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해당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 합성 물질 '프로지' 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기간 인체에 머물러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 행사 SALE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 + 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서성록, 한 점의 그림 | 빈센트 반 고흐의 <붉은 포도밭>

노동에 대한 기독교적 인식 보여주는 반 고흐 작품

추수하는 사람들, 일상의 수고 표현한 삶의 상징
노동, 자신의 필요 채울 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
해 지는 줄 모르고 일하는 품꾼들 모습 아름다워
같은 장소 그린 고갱 작품, 왓지 모를 불안과 수심

빈센트 반 고흐의 <붉은 포도밭>(Red Vineyard, 1888)은 어느 가을날 저녁 햇살의 부드러운 색조와 빛을 받으며 농사일을 하는 품꾼들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이 그림은 자못빛이 감도는 남프랑스 몽마르주 인근의 포도밭에서 받은 감흥을 토대로 제작된 것이다.

“이곳의 자연은 너무나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다. 어디에서나 하늘의 둥근 지붕 밑은 모두 눈부신 파랑이고 태양은 맑은 유황빛을 찬란하게 비추지. 너무 부드럽고 사랑스러워서 마치 베르미어 그림 속의 천상의 파랑과 노랑의 조합같아 보이지. 그렇게 잘 그리지 못하겠지만 나는 너무나 사로잡혔다.” (1888. 9월)

빈센트는 동생 테오에게 다시 한 번 소감을 피력했다.

“붉은 포도밭, 포도주처럼 붉기만 한 그 포도밭이 저 멀리 노란빛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청록색으로 변하더니 또다시 비온 뒤의 땅처럼 보라색으로 바뀌었다. 노을빛에 반사되어 사방이 노란색으로 눈부시게 빛났다.”(1888. 10. 2)

그를 사로잡았던 것은 풍경만은 아니었다. 빈센트는 포도밭을 찾으며 들라크루아의 작품에서 나타난 모로코풍 색채, 몽티셀리의 강렬한 색조로 이루어진 두툽한 임파스토, 밀레의 화면에서 지금 걸어나온 듯한 농부들을 연상했을 것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빈센트에게 포도밭은 여러 모로 깊은 인상을 안겨주었다.

이 작품을 소장한 모스크바 푸시킨미술관에서는 최근 그림이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과학적인 재료 분석을 시행했는데, 화면의 태양과 하늘의 일부는 작가가 튜브에서 캔버스에 직접 물감을 짜냈으며 온화한 느낌을 주기 위해 손가락을 사용한 것을 알아냈다. 또한 화면 오른쪽 이미지는 지금까지 강으로 여겨져 왔으나, 조사 결과 비로 축축해진 도로라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추수하는 사람들의 장면은 빈센트가 일상의 수고를 표현한 삶의 상징이었다. <붉은 포도밭>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넓은 포도밭에 흠뻑 젖어 포도를 따거나 주어담고 마차에 싣고 있으며, 붉은 노을은 이들의 하루일과가 끝자락으로 치닫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몽마르주의 아름다운 포도밭을 보며 빈센트는 성경의 한 장면을 떠올렸던 것 같다. 그것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마 20:1-16)인데,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 온 품꾼이나 늦게 온 품꾼이나 차별없이 관대하게 대해준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 남은 사람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자비로운 주인에 관한 이야기이다.

약간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이 작품에서 우리는 빈센트의 노동관을 엿볼 수 있다. 빈센트는 노동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드랜트 시절이나 누엔 시절 농부들이나 방직공들을 중점적으로 그린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일하는 사람들 그린 것은 노동의 고크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노동에 대한 기독교적 인식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헬레니즘적 사고에 따르면, 노동은 저급한 활동이고 지적인 활동만이 우월한 것이다. 그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활동을 지적인 데 두었기 때문에, 명상하고 사고하고 사유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두었다. 가장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라 여겼고, 그들은 로마의 시민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런 사고는 종교개혁가들에 의해 반박되었다. 종교개혁가들에 의하면 인간이 하는 일은 소중한 것이며, 심지어 제사장들이 하는 일에 속할 정도로 고귀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런 시각은 빈센트가 <감자먹는 사람들>이나 <자장가>에서 보듯 평범한 일상의 모습을 성스럽게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는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분리하면 우리 개개인의 삶과 그리스도의 대의에 막대한 해를 끼치게 된다고 하며 “전도나 목회나 선교 사역에 들이는 열정 못지않게 농업, 사업, 교육, 은행업에서의 성직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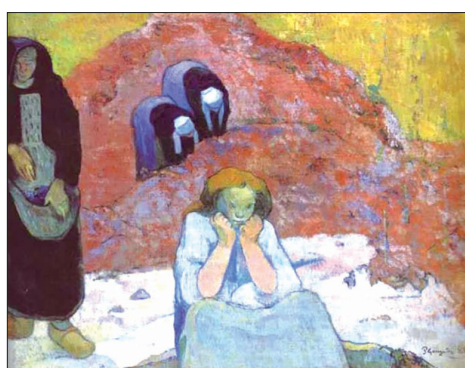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서 현재도 자신을 계시하며 창조적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인정한다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창조적 행위로 정당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에서 그림을 본다면, 일꾼들은 지금 성실히 ‘노동의 성직’을 감당해내고 있는 중이다. 영화 ‘불의 전차’에 나오는 대사에서처럼 “감자껍질을 벗기는 일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 그림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풍경이 황홀해서 또는 색상의 변화가 자연스러



빈센트 반 고흐, 붉은 포도밭, 75x93cm, 캔버스에 유채, 1888, 푸시킨 미술관 소장.



폴 고갱, 와인 수확- 인간의 비극, 73x92cm, 캔버스에 유채, 1888.

워셔일 수도 있겠으나, 필자는 단연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일하는 품꾼들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해가 누워있듯 저물어가는 데도 포도원의 일꾼들은 수확 일에 몰두하고 있다.

품꾼들에게 맡겨진 일은 단조롭고 사소한 일이다. 그렇지만 그들의 정성을 다하는 몸짓에서 그 일은 소중한 것으로 느껴진다. 일상적인 일, 심지어 허드렛일 가운데서 곧 “무대의 조명이 꺼진 상태에서도”(Os Guinness) 따름을 즐기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런 소명의 정신을 우리 사회에서 발견하는 것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현대사회에 있어 인간됨의 중심 동기는 우리 최고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지 계산하는데 달려 있다.

품꾼들이 늦도록 일한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생각한다면 ‘초과노동’ 내지 ‘격무’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의 개념은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나 빈센트의 작품은 이런 이성적 계산을 넘어선다. 그들이 일하는 것은 돈으로 보상받기 때문이 아니라, 부름을 받았기 때문

에 일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마치 ‘자유로이 하나님을 위해서’(gratio pro deo) 노동을 선택한 사람들 같다.

밭을 가꾸는 일일지라도 물질계를 보살피고 가꾸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팀 켈러(Tim Keller)의 말처럼 인간은 노동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으며 지위나 급여와 상관없이 일은 인류에게 존엄성을 부여한다.

빈센트가 이 작품을 그렸을 때, 고갱도 같은 장소에서 <와인수확- 인간의 비극>(The Wine Harvest - Human Misery, 1888)을 제작하였는데 고갱의 그림에서는 뭇지 모를 불안과 수심에 찬 여인이 등장한다.

여인은 자신이 왜 여기에 와 있으며, 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못마땅한 표정이다. 내 삶이 이처럼 엉망이 되었는지, 회의와 한탄이 묻어난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포도원을 그린 것이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크다.

빈센트는 포도밭의 일하는 사람들을 석양이 지는 배경 아래 장대한 퍼포먼스의 주인공들로 나타냈다. F. 밀레의 <만종>처럼 기도하는 경건한 장면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사소한 일이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서성록 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 칼라 \$40부터 시작 \$20부터 시작

매직스레이트 \$150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7:00 PM 토요일 09:00 AM ~ 6:00 PM

Tel: 213-739-1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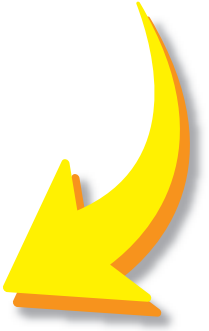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특혜 / 30% Tax Credit

**2023년
대박**



**전기세가
11달러?!**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전기세는 내려가고
- 부동산 가치는 올라가고
- Tax Credit 까지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덤으로

***** 돈 한푼 안 들이고 전기세 70~80% 절감 *****

다른 솔라 업체에 문의 후 BTS 솔라에 연락해서 비교 평가하여 결정하십시오!!

Why BTS Solar?

(왜 BTS 솔라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 전기세 ~~30%~50%~~ **70%~80% 절감효과**
- 별도의 설치비 없고 **Zero Down**
- 1st Payment은 설치 후 바로 **1년 후 부터**
- 안정적인 미국 시장 점유율 **1위 패널** 사용
- 모든 제품군 (패널, 인버터, 레일, 케이블) **25년 Warranty**
- 남가주 전 지역 **1~2달 안에 설치 가능**

• 태양광 설치 효과

태양광 설치 시 얼마나 많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첫째, 얼마나 많은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지, 둘째, 패널을 설치할 지붕의 방향과 각도가 태양광을 받기에 얼마나 적절한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현장 실사하듯 에너지 효율 체크합니다.

• 저렴한 맞춤형 파이낸스

별도의 담보도 필요없이 크레딧으로만 설치되며 가장 저렴한 Payment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설치 후 1년 동안은 100% 태양광 설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년 후부터 Payment가 시작됩니다. Payment가 시작되어도 현재 전기료의 70~80%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안정적, 효율적 제품으로 신속 정확한 시공

한국인 팀장이 주축이 되어 고객과 소통하며, 최고의 설치 노하우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효율적인 제품만을 선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공합니다.

***** 빨리 설치할 수록 많이 절약합니다 *****



**BTS 솔라 디자인
213.500.8000**

-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십시오.
1. 문의 전 전기세 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기세 고지서 사진을 찍어서 Text Message 혹은 카톡 주세요.
 3. 메시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